



1년만에 만난 최태원·최정우... 사회문제 등 양사 협력 기대

〈SK그룹 회장〉 〈포스코그룹 회장〉

SK-포스코 희망나눔 도시락 봉사

양사 CEO 사회적 문제해결 공감 최태원 "포스코와 함께해 뜻 깊어" 최정우 "더 큰 사회적 가치 창출"



남수희 포항제철소장(왼쪽부터), 김학동 포스코 철강부부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경북 포항시 송도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희망나눔 도시락'을 함께 만들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양사 합동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향후 무료급식소가 다시 운영 될 때까지 자체 운영해온 포항·광양의 무료급식소 5곳, 포항시와 광양시가 운영하는 12곳의 무료급식소 등의 이용자 2600여명에게 일주일에 세 번씩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규모 식당(포항 32개소, 광양 21곳)을 통해 도시락을 주문·제작해 지역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포스코는 기대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로 인한 결식 문제 지원 노력에 포스코와 함께 해서 뜻 깊고, SK의 도시락 제안을 받아줘 고맙다"며 "기업의 존재 이유를 보다 넓게 잡아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기업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의 '기업시민'과 SK의 '사회적 가치'는 서로 뜻하는 바가 맞닿아 있다"며 "기업시민으로서 시대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년 여만에 만났다. 이번 만남으로 향후 양사의 협력에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만남은 지난 29일 경북 포항시 송도동의 한 식당에서 '희망나눔 도시락'을 만들며 이뤄졌다. 두 회장의 만남은 201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최태원 회장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의 행사에 참석해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번 만남은 봉사활동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향후 양사간 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전기차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포스코그룹과 SK그룹은 전기차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을 통해 전

기차 배터리 사업을 키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SK를 통해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필수 부품인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전력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다.

포스코도 친환경차 제품·솔루션 통합 브랜드인 '이 오토포스'를 선보이며 수소전기차용 금속분리판과 이차전지 소재용 양·음극재 등의 개발·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수소 사업과 관련해 SK는 지

난달 '수소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수소의 생산·유통·공급을 아우르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도 2050년까지 수소 500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해 매출 3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은 최태원 회장 제안에 최정우 회장이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포스코와 SK는 각각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온

양사 CEO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희망나눔 도시락' 봉사활동의 시작을 함께 했다.

SK는 지난 15년간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행복 도시락 사업을 펼쳐왔고, 지난 1월부터는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노인 등에게 40여만 끼니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LG, 협력사 납품대금 1조2500억 조기지급

최대 12일 앞당겨 설 연휴 전 지급 1조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LG가 올해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을 앞서 지원한다.

LG는 이번 납품대금 1조2500억원을 최대 12일까지 앞당겨 설 연휴 전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1월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협력사를 돕기 위함이다. 원자재 대금 결제와 상여금 지급을 일시적인 자금 수요 집중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차와 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권장

할 계획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협력회사 대상 금리 저감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협력펀드와 계열사별 무이자 직접 대출 등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최우선 지원하며, 설비 투자와 부품 개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계열사들은 설을 앞두고 전국 사업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공동체와 이웃들을 돕기 위한 생활용품 지원, 지역 농산물 구입 등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디스플레이는 코로나19로 판로를 상실한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파주와 구미 사업장에서 지역 농산품을 판매하고, 임직원들이 구매한 수량만큼 회사에서 구매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LG화학은 여수, 나주공장 등 사업장 별로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취약계층 가정에는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는 서울 지역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김치와 생필품을 기부하고, LG헬로비전은 임직원들이 참여해 시각장애인 및 지역 취약아동을 위해 식료품과 방역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이석희, 'IEEE CTSoc 우수리더상' 수상

〈SK하이닉스 CEO〉

반도체 산업 리더십·기술 기여 인정

이석희 SK하이닉스 CEO(사진)가 글로벌에서도 우수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SK하이닉스는 이 CEO가 국제전자공학회(IEEE)의 소비자기술소사이터티(CTSoc)가 수여하는 '2020 IEEE CTSoc 우수리더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IEEE는 160여개국 40만명 이상 전기전자공학 분야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이공계 학술단체다. 매년 전세계적으로 리더십 영향력이 크고



소비자 기술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업계 리더 1명에 선정해 우수리더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 CEO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리더십과 기술적 기여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이 CEO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미래기술연구위원장으로 입사, 2018년 CEO에 올랐다. /김재용 기자

GS25, 친환경 신사업 발굴 본격화

'더 지에스 챌린지' 참여 스타트업 모집

허태수 GS 회장(사진)이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친환경 신사업 발굴에 나선다. 허 회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강화·친환경 경영으로 신사업 발굴을 강조한 바 있다.

GS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혁신 스타트업 모집과 육성으로 친환경 신사업 발굴해 나가기 위해 오는 3월7일까지 'The GS Challenge' (더 지에스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바이오 영역의 테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더 지에스 챌린지'의 첫 번째 시작은 바이오 기술을 통해 성장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함께한다. 국내를 대표하는

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바이오 기술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깨끗한 환경·건강한 미래'이며 모집 분야는 바이오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방식의 친환경 소재 생산 및 활용 ▲폐기물, 오염물질 저감, 차단·정화 및 재활용 ▲질병 진단 및 건강 관리 제품 및 솔루션 분야다.

이번에 선발되는 스타트업은 다양한 혜택을 접할 수 있어 향후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먼저 GS그룹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화의 검증(PoC)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프로젝트 마켓핏 전문 액셀러레이



팅 프로그램 제공과 바이오산업·기술 전문가 전담 멘토링 등을 제공받는다.

또 GS그룹과의 전략적 협업 및 네트워크의 기회와 함께 GS칼텍스의 연구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GS그룹과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투자 유치 등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가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된다. 바이오 기술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2인 이상의 초기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원조 모델 고객 대상 기념행사 모델명 CS400 시작제품 사진응모

LG 트롬 스타일러 인기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트롬 스타일러 판매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출시 첫해보다는 약 30배 늘었다.

트롬 스타일러는 2011년 출시한 의류관리기로, 글로벌 특허만 220개에 달한다. 트루스팀과 무빙행어 기능으로 탈취와 살균, 미세먼지 제거도 해준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슬림과 플러스, 미러, 블랙에디션 2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오브제컬렉션으로도 출시해 공간감을 중시한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해외에서도 인기를 높이며 판매량이

다. 2016년 처음 해외 판매를 시작한 이후 미국과 러시아, 영국과 중국 등 20여개 국가에 진출한 상태다.

LG전자는 트롬 스타일러 인기에 원조 모델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출시한 모델명 CS400으로 시작하는 제품을 보유한 고객에 제품 사진을 찍어 응모하면 선착순 100명에 태월과 우산, 곰인형 등 선물과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 구매시 50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한국영업본부 윤성은 리빙어플라이언스 마케팅 담당은 "지난 10년 동안 LG 트롬 스타일러 고객들이 보내주시는 변함 없는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